

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히 배척하며, 창간 25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월간 낙농육우의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에서 어느 전문 언론에 못지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월간 낙농육우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낙농육우분야를 대표하는 월간지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전문 월간지로서 낙농육우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려고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프로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더욱 개발하여 전문화·정보화·조직화에 주력한다면, 낙농육우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월간지로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농업계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육우분야는 미국의 전략적 제1 수출분야로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농육우농가들의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를 본 월간지를 통해 모아 나간다면 줄속적인 한·미FTA를 막아내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서 우리 낙농육우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12만 농업경영인들도 독자로서, 제보자로서 낙농육우문제와 정부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월간 낙농육우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낙농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 남아주길...

양정화
낙농진흥회장



국내 낙농발전과 낙농인의 권익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5년간

을 올곧게 낙농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낙농업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훌륭한 역할을 다해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월간 낙농육우”誌가 국내 낙농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처리, 배포함은 물론,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것에 대하여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낙농업의 국제적 동향 및 우수소비홍보 활동 내역, 낙농 사양기술의 보급, 그리고 낙농관련 정책 등 낙농에 얽힌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우리의 낙농인들이 “월간 낙농육우”를 통해 낙농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나라 낙농인들에게 있어서 지난 10여년간은 UR협상과 WTO출범을 비롯,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잉여원유 대란 등으로 인해 그 어떤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 등에 대비해 낙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전근대적인 축산에서 규모화 된 전업형 낙농으로 구조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에 우리 낙농업의 존립기반까지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낙농가와 생산자 단체,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은 늘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소비침체와 이에 따른 원유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원유 생산 감축 대책 등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듯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유 수급 분야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소비확대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여러 가

지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많은 낙농 선진국에서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낙농가와 유업체가 상호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많은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이해 주체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 그리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DDA/FTA 논의 등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생의 노력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낙농가, 유업체 및 집유조합 등 낙농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낙농산업의 주인인 낙농가 여러분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수급위기 상황이 새로운 수급모델 도입의 계기가 되고 향후 우리 낙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간 낙농육우’가 명실상부한 낙농 및 육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잡지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월간지를 편집, 제작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변의 고언이나

질타의 소리를 피해가지 마시고, 솔직한 실상과 전망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9천여 낙농인들이 자신이 처한 입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며, 미래에 받아들여야 할 과제의 실상 그대로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앞으로도 창간 25주년에 만족하지 말고 50주년, 100주년 이상 영원히 함께하는 낙농인들의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농촌, 낙농가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상충되는 유업계와의 고충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하여 우리의 낙농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첫째,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낙농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속적인 소비 촉진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유가 방학기간 중에도 가정에서 배달될 수 있다면 우유소비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같은 생산비 절감 노력을 통해 품질 좋은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국산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낙농산업이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생산자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깨

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전국의 모든 목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낙농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농가, 유업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귀협회는 우리 낙농업계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낙농 의무 자조금’의 정착을 통해 침체된 우유 소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9천여 낙농가 모두가 십시일반 모은 자조금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시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유소비 진작과 이에 따른 농가경영능력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의무 자조금은 곧 우리의 9천여 낙농가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한 단면으로 이러한 성공적 업적을 보여주시는 귀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